

지역 소식 통

정읍시, 5월 고향사랑기부
등 가정의 달 이벤트 풍성

정읍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풍성한 혜택을 더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가정의 달 특별이벤트'를 진행, 정읍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기존 혜택 외에 추가 경품 당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에 방문하거나 마음을 전하는 기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 정읍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기간 동안 정읍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된다.

개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정답제품이 제공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일 실시

부안군은 오는 20일 군청 대회의실과 부안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에 따른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주민대피 및 인명구조, 시설복구 태세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훈련에는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 8098부대 1대대, KT,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 등 유관기관 외에도 부안군 자율방재단, 부안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대한적십자사 부안군협의회 등 민간단체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훈련은 2회로 분산돼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 과정 중 상반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함께 도모하는 통합연계 훈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난대응 역량을 다각적으로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다시 '혁명 도시'로 우뚝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대성황' ... 1894명 진군행렬부터 세계혁명도시 연대까지

131년 전, 억압에 맞서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의 합성이 정읍 도심을 가득 채운 가운데,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막을 내렸다.

동학농민혁명, 억압에서 피어난 불꽃'을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제는 15년 만에 정읍 도심인 정읍천 어린이축구장과 시내 일원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기념제는 단순한 과거 재현을 넘어,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가 참여한 것은 물론, 독일 뮐하우젠시 대표단이 함께한 독일농민전쟁 500주년 기념 행렬도 열려 세계 시민들과의 역사적 연대를 이루는 뜻깊은 순간을 만들었다.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과 세대별 맞춤 공연 역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역사 체험 마당, 지역 예술인들의 열정적인 공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는 세대 간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끌며 '시민 중심 역사축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대파마을에서는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염수왜 혁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개막과 함께 펼쳐진 '1894 진군행렬'은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상징적 메시지를 던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정보리발 축제, 23일간의 대장정을 마친다

'폭삭 속았수다' 등 인기 K-컨텐츠 촬영스팟에 포토존 조성 · 의상대여 부스 운영 등 다양

고창군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라는 주제로 열린 '제22회 고창 정보리발 축제'가 23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축제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고창 정보리발에 '폭삭 속았수다', '도깨비', '백일의 낭군님' 등 인기 K-컨텐츠 촬영스팟에 포토존을 조성하였고 드라마 의상대여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정보리발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23일간의 축제 기간동안 약 51만명이 고창정보리발을 찾아 경관농업축제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갔으며, 이들 관광



객 중 상당수가 구시포 · 동호해수욕장, 선운산 도립공원, 모양성 등 고창군 명소로 여정을 이어가며 관광도시로서 고창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고창군은 지역은행인 선운산농

협의 협조를 통해 고향사랑상품권 부스를 운영하면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현장에서 발행하여 관광객들의 축제장 내 소비를 유도하였고 이와 연계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정부세종청사 방문 국가예산 확보 총력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12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연이어 방문하며 지역 핵심 전략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2026년도 국가예산 편성 대응의 골든타임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권익현 군수는 탄소



중립 · 해양 · 생태 · 문화 분야에 걸친

8건의 주요 현안사업을 정부 실무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건의된 대표 사업으로는 기후위기 대응형 교육 · 체험 플랫폼인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이 포함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지역사회를 지켜온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장수 기리고 존경 · 감사 표해

정읍시, 100세 어르신께 100만원 상당 축하선물

정읍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지역사회를 지켜온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시는 올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올해 기준으로 1925년 이전부터 한 세기에 걸친 힘든 삶과 역사를 써내려온 우리 시대의 산증인이다. 시는 오랜 시간 정읍을 지키며 발전에 이바지한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초고령사회를 넘어선 현시점에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고령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에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

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는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올해 장수축하물품 지원 대상 어르신은 총 45명이다. 지원 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으로, 생일이 지난 100세 이상 어르신은 집중신청 기간인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0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사와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라도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장수축하물품 지원을 위해 사전에 어르신들이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 10종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선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지, 자긍심 가져야”

고창문화의전당서 황현필 한국사 전문가 초청 특강

황현필 역사바로잡기 연구소장이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지이자, 진봉준 장군의 출생지로, 애정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정기백) 주관으로 황현필 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열었다.

황현필 강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전국적인 혁명의 시작이 된 무장기포(茂長起砲),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인 진봉준 생가터, 순화종이 비기를 탈취했다는 선운사 마애여래좌상 등 동학농민혁명 핵심 유적지를 소

개했다.

특히 특강에 앞서 관중들은 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을 맞아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황현필 소장은 인문계 고교 교사로 7년간 재직 후 IBX와 공무원 등 수험한국사 강사로 활동했다. 황현필 한국사 채널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역사 강의를 하고 있다.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된다는 신념으로 역사바로잡기연구소를 설립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